

# 여수거북선축제, 하이라이트 '통제영 길놀이' 준비 만전

### 내달 3일 시민회관-중앙동 이순신 광장까지 행렬 역대 최대 규모 3천여명 출연진 섭외...웅장함 전달

여수시가 여수거북선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영 길놀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여명의 출연진을 섭외해 밤거리를 가득 채운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통제영 길놀이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도 해상을 점령한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했던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첫 출정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 이는 여수거북선축제에서 가장 중요

하고 기대되는 부분으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장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5월3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축제는 시민회관에서 시작해 중앙동 이순신 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우렁찬 군악 연주와 퍼레이드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여수 신월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이순신 장군의 전통 복장을 하고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들은 기마와 수군행렬을 이끌고, 거북선, 판옥선, 포작선, 옥수래, 영거, 진해루에서의 군사회의 장면 등을 재현하며, 왜적선(고바야)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작품들이 출연한다. 이번 통제영 길놀이에는 3천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조선 중기의 복장을 입고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감동과 웅장함을 선사할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거북선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과 참여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통제영 길놀이는 축제 실무를 총



여수시가 오는 5월3일 오후 6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중앙동 이순신광장까지 통제영 길놀이를 선보인다. 사진은 여수거북선축제의 '통제영 길놀이' 모습. <여수시 제공>

괄하는 전제민 거북선축제보존회 상임이사인 진두지휘 아래 준비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과거에 시민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소년이순신 선발대회, 용졸다리기, 소동줄놀이, 시조경창, 한시백일장 등의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전제민 거북선축제보존회 상임이사는 "이번 축제에 출연하는 3천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응도가 떨어진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을 주제로 이순신광장과 전소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이 지난 22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TSE그룹 본사에 방문해 담양 자재 육성 딸기(죽향, 메리퀸)의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 담양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 담양군-인도 TSE그룹 담양 딸기 육성·재배 '맞손' 1억 로열티·인도 도심 대규모 딸기 공장 조성 추진

담양군이 자체 육성한 딸기 '죽향'과 '메리퀸'이 인도네시아에서 첫 로열티를 받으며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김나빈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길웅 기술보급과 원예특작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린도그룹(TSE그룹) 본사에서 담양 자재 육성 딸기(죽향, 메리퀸)의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한국 재외동포 기업)으로, TSE그룹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곳이다.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어반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담양군과 TSE그룹 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담양군은 1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TSE그룹은 담양군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도심·근교에 대규모 딸기 식물 공장 조성하고 딸기 연중 재배, 재배 면적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딸기

시식 테스트 결과, 죽향은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조사돼 향후 담양 딸기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도 딸기를 수출하며 동남아 국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중동, 유럽, 미국에 딸기 원모 수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 딸기가 해외에서 첫 로열티를 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협약이 담양 딸기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 광양경제청, 대만서 자동차 부품 투자유치 전개

### 대만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참관·3개 기업 방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3박4일동안 대만 타이베이, 타이중 지역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및 소재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대만 투자유치 활동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 등을 통해 한국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만의 콩코드(Concord), 핑신(Fengshin), 드래곤 스틸(Dragon Steel) 등 3개 사를

방문해 광양만권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투자 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만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에 참관했다. (사진) 이번 대만 투자유치 활동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 등을 통해 한국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만의 콩코드(Concord), 핑신(Fengshin), 드래곤 스틸(Dragon Steel) 등 3개 사를

관해 자동차 부품 관련 대만 기업들을 파악하고 잠재 투자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김정완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추후 대만 기업들이 광양만권 협장을 방문해 한국 시장과 투자 여건을 잘 이해하고 투자를 실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곡성 와사비, 지역 신소득 작목으로 '발돋움'

### 작년 상표 등록...광주농협 7개 지점 판매

곡성 와사비(사진)가 토란, 멜론, 딸기 등의 주요 특화작목 외 신소득 작목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와사비는 적정 생육온도가 8-18°C인 저온성 작물로 풍부한 비타민 C는 물론 매운맛을 내고 식중독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를 가진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을 가지고 있다. 곡성 와사비는 지난해 전남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육성 중인 신소득 지역 특화작목이다. 곡성군은 와사비 육묘·실증 재배 연구, 현장 적용 시범, 유통 상품화 및 출하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부터 3일간 개최된 '제20회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와사비장아찌와 백세미를 활용한 샐러드, 와사비 차 등을 선보였으며, 와사비장아찌 200 세트는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옥과농협과 협업을 통해 광주농협 7개 지점과 출하 계약을 완료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최근에는 북광주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에 선정돼 특수 채소의 경쟁력 있는 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행사 참석과 판로 확보를 통해 곡성 와사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며 "향후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농가 보급 확대,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등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장흥 장재도 휴스테이 휴양지 조성

### 이담종합건설(주) 투자협약...관광호텔·펜션 건립

장흥군은 24일 "지난 22일 이담종합건설(주)과 함께 장재도 휴스테이 휴양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군수, 윤기영 이담종합건설(주)대표이사 등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장재도 휴스테이 휴양지 조성사업은 장흥군 안양면의 장재도 일대를 개발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7년까지 200여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 57실 ▲펜션 6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자 이담종합건설(주)은 카라반 캠핑장과 수상복합건물, 공동주택 등 다수의 관광레저사업과 주택보급사업 경험을 지닌 부산시 소재의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군과 장재도에 휴양지를 개발하는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윤기영 이담종합건설(주) 대표이사는 "이번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장흥군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지역 상생과 고용 안정,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성군수는 "군에서도 정남진대교 경관 조성사업과 장재도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로 장재도가 성공적인 관광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화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확대 지원

화순군은 24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고흥우주항공축제 '나로호·누리호' 전시장 운영

### 내달 4-6일 실물체 특별전시관 전시

고흥군이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나로호·누리호 실물체를 전시한 다. (사진)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로켓인 나로호·누리호 실물체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특별 전시관에는 ▲한국형 과학탐사 로켓인 KSR-I·II·III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KSLV-I·II(나로호·누리호) ▲위성을 탑재한 페이로드 어댑터 ▲비행 중 대기 마찰열과 압력변화로부터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페어링 ▲누리호 7차 엔진 ▲누리호 2차 발사 때 쏘아 올린 성능 검증 위성 모델

도 함께 전시된다. 또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형도 제작·전시해 우주로의 꿈을 선보인다. 특히 축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참여하는 ▲'증강 현실 달 표면 체험' ▲태양계 8개 행성으로 꾸며진 지구 밖 우주로 가는 유일한 플랫폼 '우주 터미널' ▲태양계에서 우주인을 만나 달과 행성을 여행하는 '미디어아트' 등이 함께 구성된 우주항공축제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우주인 카니발, 카이스트 달 탐사 로봇 시연 등 35종의 우주 과학 체험과 지구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더마트외계인 쇼 등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재미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